

‘學位論文 단행본’이 늘고 있다

상아탑 속에서 독서시장으로...어문학·역사 분야가 주류

최근 우리 출판계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박사학위 논문의 단행본화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한 이 새로운 흐름은 특히 어문학이나 역사 같은 인문과학 분야에서 일종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출판과 아카데미즘의 또다른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성과의 사회공유화” 긍정 평가

전에는 박사학위 취득자 자체가 극히 한정돼 있는 데다가 국내학위는 외국학위에 비해 그 가치가 암암리에 평가절하당해 온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대학과 대학원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학위 취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젊은 세대의 경우 공부하는 외국에서 하더라도 학위는 국내에서 받았다고 할 정도로 국내학위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위논문의 단행본 출판이 늘고 있는 것은 이처럼 학위 취득자의 수가 증가했다는데 일차적 이유가 있지만,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보다 공적인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야겠다는 학자들 개개인의 바람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학위논문이 심사에 통과한 다음 학교와 문교부에 제출하기 위해 만드는 논문집은 대개의 경우 4·6배판에 무선제본, 마스터 인쇄로 이루어져 어디까지나 ‘제출용’ 또는 ‘도서관 보관용’에 그치고 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 독자층과는 절연된 채 ‘자신과 주위 몇사람만 읽고 마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박사학위 논문만큼 고도의 정련된 작업도 드물다고 할 수 있는 우리 학계 실정에서 사회의 공유재산이 되어야 할 저작물들이 상아탑의 철장 속에 갇혀 사장된다는 것은 확실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학위논문의 단행본 출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논문의 단행본화에 나서게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위논문을 단행본화하는 과정에서 틀렸거나 불분명했던 점을 발견, 수정하는 등 원래의 논문을 보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연구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상업성不在’가 가장 큰 문제

그러나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

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박사학위 논문은 대개 200자 원고지 600~800장 정도의 분량이다. 때문에 이것을 단행본화할 때는 관련 자료나 기왕에 발표했던 다른 논문들을 수록하는 등의 편법을 써야 단행본 부피가 나온다.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시장성이 좁다는

출판과 아카데미즘의 또다른 만남.
80년대 들어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대학 도서관에 갇혀 있던 학위논문이 점두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보다 손쉽고 자유로운 유통과 독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상업성 조화가 큰 과제이나,
문학·역사학 분야를 넘어서 철학·사회과학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이다. 학위논문은 내용의 전문성과 집약성 때문에 부득이 제한된 소수의 독자들에게만 통용될 수 있고, 자연히 출판사 입장에서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어느 정도 출혈을 감수해야만 한다. ‘돈이 되지 않는 학술서적’ ‘시판성 없는 연구물’ 등의 표현은 학위논문의 상업성의不在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들이다. 이처럼 수준높은 책을 낸다는 명예만큼 수익성이 뒤따르지 않는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몇몇 출판사들이 학위논문의 단행본 출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그 자체의 수익성보다는 출판사의 이미지라든가, 대학교재 저자들과의 ‘끈당기’와 같은 가외소득을 노리는 면이 짙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독자층의 한정으로 인한 판매상의 문제 외에 학위논문의 단행본화가 가진 또다른 어려움은 편집, 조판, 교정이 다른 일반 단행본에 비해 엄청나게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도서인 만큼 유난히 각주가 많고 색인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며, 보다 세밀한 편집과 꼼꼼한 교정을 필요로 한다. 역사나 고전문학 분야의 학위논문인 경우엔 요즘 그리 쓰이지 않는 漢字나 고어가, 외국문학 분야의 경우는 외국어 활자가 편집자의 눈을 괴롭히는 것이다.



상업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의 단행본화가 늘고 있다.

영문학은 한신문화사, 독문학은 삼영사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출판사는 해당 학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채 특정 분야의 학위논문을 전문적으로 출간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현재 학위논문의 단행본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역시 문학 분야. 전문학자나 전공학생들 외에 일반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작가 작품에 대한 개별 저작은 태반이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영문학 분야는 한신문화사가, 독문학 분야는 삼영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책을 출간하고 있다.

한신문화사는 「다양을 위한 변모: Hawthorne의 예술적 원리와 실제」(朴翊斗), 「William Faulkner의 시간과 비극적 비전」(金知源)을 비롯, 「소울 벨로우의 소설과 인간소외」(金啓民), 「Coleridge 시에서의 存在의 意味」(宋在參) 「그레이엄 그린의 소설과 우니무노」(崔在錫) 등 지금까지 30여종에 달하는 영문학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해왔다. 이성중 편집장은 “수요층이 없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지만 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내고 있다”면서 초판은 500부 정도 찍지만 인세는 재판부터 지불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매망의 협소함은 삼영사가 펴내고 있는 독문학 학위논문의 단행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81년 全光珍교수의 「릴케의 두이노의 悲歌 연구」를 시발로 「넬리 작스 연구」(崔妍

淑),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노벨레 연구」(申泰浩), 「잉게보르크 바하만 연구」(李丙愛), 「휠더린의 핀다르受容에 관한 연구」(千丙熙), 「하인리히 뵐의 文學世界」(劉珍玉) 등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독일작가들에 대한 연구물을 계속 내오고 있는데, 독자들의 호응도가 너무 적어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에 있다고 한다. 처음엔 초판을 1000부 정도 찍었지만 요즘은 500부 정도밖에 찍지 못한다는 데서도 우리 독자층의 구조적 한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인세의 정상지불 어려워

이처럼 특정 외국문학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국내의 작가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을 보여주는 출판사가 문학과지성사와 정음사이다. 78년 鄭文吉교수의 「疏外論 研究」를 시작으로 만해와 소월의 시를 대상으로 한 「詩와 상상력의 구조」(김현자) 및 「퀸터 아이히 연구」(金光圭), 「고트프리트 벤 연구」(金柱演) 등의 학위논문을 낸 문학과지성사는 출판사가 가진 명망성 탓도 있었지만 전문 연구서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따르고 있다.

정음사는 아예 박사학위 논문집 시리즈를 내고 있는 경우. ①「17세기 한국말의 높임법과 그 15세기로부터의 변천」(김정수) ②「게오르크 트라클 연구」(고위공) ③「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성낙수) ④「尹東柱 연구」(마광수)에서 최근의 ⑩「춘향전의 형성과 계통」(설성경) ⑪「임진록 연구」(임철호)에 이르기까지 국어학, 국문학, 외국문학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돼 있다. 출판사에서는 잘 팔리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20권까지는 널 예정이라면서 인세도 정상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문학 분야 학위논문의 단행본화에 나서고 있는 출판사로서는 집문당, 일지사, 형설, 새문사, 二友출판사 등이다. 이중 집문당은 「한국노동민요론」(김무현), 「오광대와 들놀이 연구」(정상박), 「정선아라리의 연구」(강등학), 「韓·中세시풍속 및 가요연구」(장정룡) 등 주로 민속에 관심을 두어온 편이고, 일지사는 「열하일기 연구」(姜東燁), 「한국 문학의 맥락」(김영수) 등의 목직한 저서들을, 새문사는 「근대시의 내면구조」(李崇源)를, 二友출판사는 「松江 鄭澈 연구」(金甲起) 「현진건 소설연구」(현길연) 등을 각각 최근에 펴내고 있다.

일조각, 사학 분야에 많은 배려

국문학 분야가 비교적 왕성한 것과 달리 국어학 분야는 상당히 적조한 편. 탐출판사가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척하고 있으며, 한신문화사가 발을 맞추고 있는 정도이다. 88년도 「國語 格助詞 ‘을/를’의 연구」(李珪鎬), 「國語의 不定格과 格標識省略」(李南淳), 「國語活用語尾의 형태와 의미」(徐泰龍) 등의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펴낸 탐출판사는 평소 ‘국어학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무게 있는 연구저서를 출간해오고 있다. 고어표기에 애를 먹으며, 초판 500부가 소화되기에 2년이 걸린다고.

역사학 분야로 초점을 옮겨보면, 이 분야에 선 단연 一潮閣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한국사학 출판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일조각에선 일반 연구서적의 출판 외에도 수준높은 학위논문의 출판을 많은 배려를 해왔다. 가장 최근의 「백제정치사연구」(노중국) 외에도 「중국고대제국성립사연구」(이성규), 「한국중세사연구」(하현강), 「조선후기당쟁사연구」(이은순), 「중국중세호한체제연구」(박한재) 등 역사학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역저들을 도맡아 출판해오고 있다. 최재유 상무는 향토문화나 신분계급과 관계 있는 저서만 좀 움직일 뿐 독자층이 좁아 애를 먹는데, 그나마 일부 독자층은 전문도서는 책값이 비싸다는 선입감만 가지고 이를 무단복제하여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우리마저 안하면 누가 하겠느냐”는

말에서 자부심과 곤혹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진다.

대학출판부의 역할 기대 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위논문의 단행본 출판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고, 그 분야도 아직은 문학·역사에 치중된 형편이지만 최근 들어서 「역사주의와 역사철학」(李漢龜, 문학과지성사)이나 「조선후기사회경제사」(李榮薰, 한길사), 「조선신민당사연구」(심지연, 동녘) 등 철학, 사회과학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문학적 당파성」 ‘학문적 당파성’을 주장하는 젊은 세대 학자들이 운동권출판사를 통해 새롭고 진보적인 관점의 학위논문들을 선보이는 것도 곧 일반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학위논문의 단행본화에 있어서 또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외국대학에서 제출·통과된 학위논문을 우리말로 옮겨 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82년 출판되어 문단에 큰 충격을 준 김화영교수의 「文學想像力의 研究—알베르 카뮈론」은 프랑스 문학연구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저서로 화제가 되었다. 정음사의 「리어왕 연구」(윤정은)와 문학과지성사의 「윌더린」(장영태), 「스탕달사설 研究」(李東烈)도 같은 케이스. 외국문학 연구도 결국은 우리 문학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좋은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위논문의 단행본화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많은 강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시장성이 없는 학위논문의 출판을 언제까지 상업출판사가 맡아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 대해 문학평론가 신덕룡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학출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대와 연대, 계명대, 영남대 등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아주 미흡한 수준이고 여기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위취득자의 수가 증가되는 그만큼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도 문제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저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학교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내는 것은 부질없는 인력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진우 기자

저작구상

法전통의 사상적 조명

「韓國法思想史」

崔鍾庫

서울대 법대 교수

내가 「한국법사상사」의 저술을 작정한 것은 적어도 5년전부터이다. 명색이 法思想史學 전공의 한국최초의 교수라는 명예와 책임을 지고 대학강단에서 법사상사 강의를 한지도 10년에 가까와 온다. 매년 학생들에게 서양법사상사를 주내용으로 가르쳐 오면서 어딘지 남의 얘기만 하고마는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법사상사가 서양법사상사와 동양법사상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법사상사로 학문적 分化가 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고, 그것을 위하여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자책감같은 것을 느꼈다.

넓은 의미의 法史學을 法制(度)史와 법사상사로 나누다면, 법제사는 서양법제사와 한국법제사로 나누어 강의가 실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법제사, 일본법제사같은 동양법제사는 아직도 황무지에 가깝도록 연구자가 없는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사학자란 다섯 손가락에 꼽기에도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런 사정 속에서, 법사상사학은 동서양의 구별없이 두루뭉실 내려왔는데, 오히려 법사상사의 중요성과 매력력을 느낀 학생들로부터 서양법사상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법사상사를 알아야겠다는 자각과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상史란 서양말로 딱 뭐라고 번역하기 힘든 동양어이고, 서양처럼 법철학이 이론화, 체계화되지 않았더라도 법사상사는 동양에 대하여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법에 관한 생각이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형성되어 그것이 어떻게 법제도 혹은 국가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생성, 발전, 소멸하는가를 다이나믹하게 서술하는 일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어느 사회, 어느 민족에게나 법이라는 것이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데, 다만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 학자, 법률가들이 그런 문제의식에서 서술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작업을 어떤 방법론에 입각하여 어떻게 체계화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사실 나는 이 문제를 수년간 고심하면서 몇가지 시도를 해보았다. 한국



법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에서 법사상사의 방법론을 발표해 보기도 하였고, 일본의 학계에 발표하여 반응을 들어보기도 해보았다. 일본에도 아직 그들의 법사상사 通書가 없고, 중국에서도 최근 몇년 사이에 이 방면의 저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내가 구상하고 있는 「한국법사상사」는 일단 대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교과서에 가까운 通史書이다. 부분적 연구논문들을 모은 논문집은 일견 더욱 깊이있게 보이면서 쉽게(?) 낼 수 있으나, 그것을 총괄해서 하나의 通書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분적 연구성과들을 원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한 체계서가 갖는 테크니컬한 제약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사상사를 고대법사상의 원류, 불교의 법사상, 유학의 법사상, 향약의 법사상, 실학의 법사상, 그리스도교의 법사상, 서양법사상의 수용, 한말 민족주의의 법사상, 동학의 법사상, 일제하의 법사상, 해방후의 법사상으로 특징적 시대구분을 하고, 그 시대의 법문화사적 배경을 간단히 서술한 뒤 법사상을 전개한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을 검토해 보는 식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해방후 부분은 오늘날 한국법사상 내지 한국법문화의 분위기를 몇 가지 사상적 조류의 관점에서 되도록 자세히 분석하고 북한의 법사상과 법학계에 관하여도 독립된 장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막스 베버는 동양에는 자연법의 관념도 합리적 법과 절차도 발달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지만, 우리는 그런 선입견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명멸한 법의 전통을 사상사적으로 조명해야 할 것이다.